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앞두고 9일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 영령들의 높이 기리는 만장이 내걸렸다.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지난 1일부터 8일 까지 2만3000여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18 30주년 정치 행사 변질 우려

### 기념행사위 시국관련 프로그램 확정...행안부·5월 단체와 마찰 조짐

'화해와 용서' 정신의 실천을 통해 5·18 민중항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30주년 기념행사 중 일부가 시국관련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당초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5·18 관련단체들이 30주년 행사의 정치적 이용을 자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 원회(이하 30주년 행사위)는 오는 15 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할 '2010 민주대성회'를 4대강 사업 반대·후퇴한 민주

주의 비판·무너진 남북 관계 신뢰회복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국 집회 형태로 치르기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릴 '전국 노동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철폐·금호타이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도 이날 광주에서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공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30주년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올

바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주의 역할하는 현실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5·18 일부 행사를 시국 관련 내용을 담아 치르기로 했다"며 "이것이 바로 송고한 5월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0주년 행사위원회가 이처럼 일부 행사에 대해서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사)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사)5·18 구속부상자 회·(사)5·18 부상자회 등 5월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이 시국 관련 행

사들이 5·18 기간에 잇따라 개최되는 것과 관련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은 5·18 기간 중 광주에서 갈등과 마찰이 재현되면서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월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일 광주 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5·18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5월 관련 단체 관계자는 "5·18 행사가 순수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조만간 각 단체 대표 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인권은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 라뤼 UN 인권위 보고관 5·18 묘지 참배

"인권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만난 'UN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은 각국의 민주·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UN 인권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인권 변호사·운동가로 활동 중인 라뤼씨는 이날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인 의미·과정, 인권 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특히 "인권은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하는 한권,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주·인권이 기본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라뤼씨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현화·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보며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양수현기자 yang@

### 전남대 5·18 문화예술제

전남대학교가 오는 13일부터 28일 까지 5·18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5월 17일 전남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청을 향해 행진하는 'A-GAIN 1980 퍼레이드' 행사와 함께 영화제·연극·판소리·음악회·관화 전·학술제·콘서트·오페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희종기자 chae@

### 영광 월산리 암자 화재

9일 오후 1시 18분께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의 한 암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시간 2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암자 기와와 연등 등을 태워 1천7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내부에 사립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 조익상기자 ischo@

### "잠재워주겠다" 유인

#### 여중생 감금 성폭행

광주지방경찰청 윈스톱기동수사대는 9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가출 여

### 히말리야 마나슬루 등반 실종 박행수씨

#### 수색 허사...오늘 시신없는 장례식

지난달 24일 히말리야 마나슬루(8163m)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박행수(27·광주대 산악회 OB)씨의 장례가 광주·전남 학생안연맹장(葬)으로 치러진다.

광주·전남 학생안연맹장에 따르면 실종 이후 10여일간의 수색에도 끝내 박씨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가족들과 협의해 광주에서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연맹장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능성동 노블장례식장과 광주대 산악부동아리에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영결식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사고 직후 원정대는 현지에서 헬기를 이용해 수차례 수색·구조 활동을 시도했으나 심한 눈보라와 혹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박 대원은 지난 2002년 광주대 산악회에서 산악활동을 시작해 2007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등계반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8 미칼루(8463m) 원정대 대원으로 해외원정 등반에 참가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PC방 '발 냄새 다틈' 면살잡이

○...PC방에서 '발 냄새'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주인과 이를 거부한 손님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여 나란히 경찰서행.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신의 PC방에서 책상 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있던 손님 이모(39·북구 두암동)씨에게 "나가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서로 면살잡이를 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책상 위에 발을 올려 놓은 것은 본 엎좌석 손님이 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해 발을 내려 달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농지 위장매입 농정지원금 수억 쟁겨

### 광주지검 계약서 위조 돈 빼돌린 14명 기소

검찰이 허위로 농지를 사거나 빌릴 것 처럼 꾸며 수억원대의 농어촌공사 지원금을 받아챙긴 전업농(專業農) 등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9일 서류 위조와 명의 대여 등 의 방법으로 거액의 농지 매입·임차 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2)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농지를 사거나 빌릴 것 처럼 속여 농정지원금 6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도 각각 1~12차례에 걸쳐

허위 농지매입 및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1인당 3600만~6억2000여만원 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최모(50)씨는 지난 2008년 4~8월 경매 낙찰인의 명의를 차용해 자신의 농지를 다시 매수하는 것 처럼 속여 2억2900만원을 부당하게 태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농지를 사거나 빌리지 않으면서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령 사례가 나주시에 집중돼 있는 점으로 미뤄 국책사업 과정에서의 보상을 노

리는 투기적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구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공적 자금은 눈돈'이라는 인식이 농정지원금에도 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적자금의 집행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보조금 관련 사법을 균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농지매입·임차지원금 제도=농사를 주된 직업으로 하는 전업농(專業農)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사거나 빌릴 때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제도. 매입지원금 수령자는 연리 2%로 15~30년간 균등상환하고, 임차지 원금 수령자는 무이자로 5~10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